

산 밖에



나으리요!

산 바깥에는 뭐가 있심미꺼?

다시 산





# 줄거리

'박석'의 5일장이 한창이다.

'박석'의 종복인 '언놈'은 조문을 온 문상객들 중 '앵실'을 알아보고  
과거 한량시절의 '박석'을 떠올리게 된다.

'한량 박석'은 '앵실'의 당찬 모습에 반하게 된다.

'박석'은 '앵실'이 왈짜패에게 협박당하여 사람들을 꺾어내어  
왈짜패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갈취한다는 것을 듣게 되고  
'앵실'을 돕는다.

박석은 이것을 계기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접게 되는데...





# 기획의도

사)문화창작집단 공터다는 지역역사자원발견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역사인물을 주제로 한 공연을 제작하고 레퍼토리화 하고 있다. 현재까지 <왕산 허위(의병장 허위)>, <그 남자의 자서전/삼장사의 용감(독립투사 박희광)>, <더 뮤즈, 록주(동편제 명창 박록주)>, <아도가 남쪽으로 온 까닭은(아도화상과 모례장자)>을 제작하였다.

구미역사자원발견프로젝트는 우리 극단의 미션 중 하나인 예술가(단체)의 사회적 역할의 실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신격화된 신화로 점철된 철학이 부재한 우리 도시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우리 시대를 환기할 유의미한 인문학적 속성을 발견하여 이를 소재로 제작한 작품을 통해 관객을 나아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거울보기이다.

연극 <산 밖에 다시 산>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였던 구미역사인물 송당 '박영'의 삶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5번째 작품이다. 극은 주인공인 '박석'의 장례식장을 배경으로 그를 기리는 종복 '언놈'의 회상을 통해 박석의 삶을 반추한다. 철학이 책 속이 아닌 실용학문임을 몸소 실천한 박석을 통해 우리 시대를 반추해 본다.





# 모과나무의

## 쓰임과 같은 철학

조선건국의 근간 철학이었던 성리학은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한 뿌리였다. 건국을 뒷받침한 철학은 새로운 세상을 꿈꾼 신진세력의 막강한 무기였다. 하지만 그 막강한 철학은 점차 계급과 신분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조선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마침내 무너진다.

구미역사인물, 송당 '박영'은 조선 중기 무신이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학문에 뜻을 두고 낙향하여 유학자의 길을 걷는다. 유학의 기본경전인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하나인 '대학(大學)'을 만 번을 읽는다. 4살 연상인 정봉을 스승으로 모시고 '저 산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부단히 공부한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술 공부를 한다.





연일 뉴스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가 쏟아진다. 사기, 비리, 표절..... 이 모두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가 명확하지만 우리 사회는 진영의 논리만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우리시대의 **'철학(哲學)의 부재(不在)'**가 아닌가 한다.

철학은 세계(世界)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반응(反應)하게 하는 긴장을 주는데 그 때 인간은 반성(反省)하기 시작하면서 경이(驚異)를 깨닫는 순간 시작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부단한 실천이 철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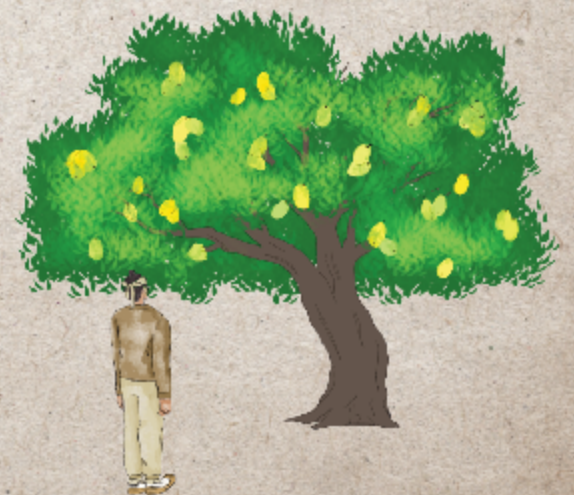
여기 박석이 있다.

말년에 약초를 살피고 기록하는 그에게 종놈 '언놈'은 언제 공부해서 출세할 거냐고 책 읽지 않는 그를 다그친다. 박석은 자신은 여전히 공부 중이라고 한다. 책을 읽는 것만이 공부라는 관념에 갇힌 언놈에게 말한다. **"높은 공부는 실천에 있다."**

그리고 좋은 약재인 모과나무에 대해 말한다.

**"모과는 네 번 놀라는 과일이다. 꽃이 아름다운데 비해 열매는 못생겨서 한 번 놀라고, 못생긴 열매가 향기가 매우 좋아 두 번 놀라고, 향기가 좋은데 비하여 먹을 수가 없어서 세 번 놀란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 째는 먹을 수 없지만 목질이 좋고 한약재로 좋으니 그 쓰임새에 놀란다."**

철학이 바로 모과나무의 쓰임과 같지 않은가.





# 공연안내

공연일시

2024.3.28.목- 30.토  
목-금 19:30 | 토 16:00

공연장소

소극장 공터다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티켓가격

일반 20,000원

청소년 15,000원

러닝타임

90분

문의전화

054.444.0604

예매처

티켓링크  interpark 티켓

yes24  예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주체 지원사업은 공연예술 현장의  
핵심역할을 하는 예술단체들의 중장기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 크레딧

예술감독 김용원

작곡 김강곤

작 김인경

무대감독 위유정

연출 황윤동

무대디자인 남영우

출연 김헌근

조명디자인 남궁진

전성호

의상디자인 유은정

김주열

분장디자인 최진아

연수연

음향오퍼 장가영 권진솔

이재선

조명오퍼 이규용

양우진

김영균

기획 김영심

주최/주관

(사)문화창작집단  
Gongter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디자인기획 임지수